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세미¹, 염영란^{2*}

¹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Semi Lim¹, Young-Ran, Yeom^{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학년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ANOVA, Scheffe,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소진은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진에 대한 영향요인은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로 총 변화량의 60%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COVID-19, 간호대학생,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grit,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burnout.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from 155 students who were in 3rd year of the nursing college in G city, from May 11 to May 25, 2021.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tatistically, burnout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grit, resili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were 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clinic practice accounting for 60% of the total change. Based on this study, strategies to enhance resilience, satisfaction of maj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clinic practice are required to reduce the burnou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Key Words : COVID-19, Nursing students, Grit,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Burnou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Received August 13, 2021

Revised November 30,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각 대학의 상황 및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대면, 비대면 또는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로 2021년 3월 기준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 운영 대학은 10개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동 224개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1000시간의 임상실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2] 임상실습을 위해 임상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습 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까지 받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일부 임상실습기관은 COVID-19 방역 예방도 미흡하여[3], 간호대학생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COVID-19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과[4]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5], 소진을 경험하면서 중도 휴학 및 자퇴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로[6] 이들의 소진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릿(Grit)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탄력성 요인이다[7]. 그릿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소진이 낮고[8], 학업의 중도탈락 가능성이 적으며, 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및 대학생활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9]. 이와 같이 상황의 변화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달성을 함으로써 소진 정도는 감소되고 학업적응 및 대학생활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의료계열 전공 대학생이 비의료계열 전공 대학생에 비해 소진 정도가 높고[10],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 간의 차이, 낯선 병원환경, 무례함 등을 경험하면서 소진 정도가 높으며[11]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가운데 학년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진 정도는 증가하고 학업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12]. 이렇게 증가된 소진은 학업 저하 및 직업에 대한 준비도에 영향을 미쳐 졸업 후 간호사로서 경험하는 직무에 대한 속달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13]. 따라서 간호실무현장에서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소진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직면한 역경에 적응하고 오히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되고 있다[14].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호대학생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되고[15]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16] 예비의료인으로서 진로적응성에 필요한 요인이다[17]. 또한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대학생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취업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8],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파악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좌절의 상황에서도 성취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실행해 나가는데[1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소진되어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0]. COVID-19로 자기주도 학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1]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익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19]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감과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소진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COVID-19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10], 무례함[11], 대처[11,12,15,22], 임상실습만족도[11], 학업스트레스[12], 회복탄력성[15], 정신건강[15,23], 학업적 자기효능감[24], 대학생생활적응[24] 등의 변수가 다루어졌으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동시에 확인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간호대학생 3학년은 COVID-19 상황에서 대면 및 비대면 이론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업의 강도가 높아져 소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소진을 극복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역경을 딛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간호대학생의 교육과

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인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G시 소재 C대학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과 이론 수업을 병행하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부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효과크기 .2,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13개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45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총 155명의 대상자가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성격, 대인관계, 취업 희망 분야, 학교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

습 만족도, 학업성적 등을 조사하였다.

2.3.2 그릿

그릿은 Duckworth 등[25]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을 Lee[26]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관심의 일관성(6문항), 노력의 꾸준함(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력의 꾸준함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 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Yang 등[27]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자신감(3문항), 긍정성(4문항), 대처능력(2문항), 감정조절능력(4문항), 조직적 스타일(3문항), 관계성(4문항), 사회적지지(4문항)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성 1문항, 사회적지지 1문항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2.3.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으로 과제난이도 선호(4문항), 자신감(8문항)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과제난이도 선호 .84, 자기조절효능감 .76, 자신감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과제난이도 선호 .80, 자기조절효능감 .93, 자신감 .92이었다.

2.3.5 소진

소진의 측정도구는 Schaufeli 등[29]이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Hong[22]이 수정한 소진척도(MBI-SS)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정서적 탈진(5문항), 냉담(4문항), 무능감(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능감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정서적 탈진 .85, 냉담 .78, 무능감 .7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정서적 탈진 .90, 냉담 .91, 무능감 .88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익명성 보장과 비밀 보장, 연구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 작성 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에 대한 분석은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와 bonferroni correct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25.82세로 성별은 '남자' 13명(8.4%), '여자' 142명

(91.6%)이었고 성격은 '내향적'이 91명(58.7%)이었고, 대인관계에서 ' 좋음'으로 답한 경우가 80명(51.6%)이었으며 취업희망 분야에서 '대학병원급'이 97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만족'이 84명(54.2%), 전공만족도에서 '만족'이 88명(56.8%)이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서도 '만족'이 88명(56.8%)이었다. 학점은 '3.0~(3.5)'가 50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25.82±7.12
Gender	Male	13(8.4)	
	Female	142(91.6)	
Personality	Introverted	91(58.7)	
	Extroverted	55(35.5)	
	Others	9(5.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80(51.6)	
	Moderate	72(46.5)	
	Bad	3(1.9)	
Hopeful Employment	University hospital	97(62.6)	
	small and medium hospital	34(21.9)	
	Public Health	16(10.3)	
	Others	8(5.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84(54.2)	
	Usually	68(43.9)	
	Dissatisfaction	3(1.9)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88(56.8)	
	Usually	62(40.0)	
	Dissatisfaction	5(3.2)	
Satisfaction of clinic practice	Satisfaction	88(56.8)	
	Usually	58(37.4)	
	Dissatisfaction	9(5.8)	
Grades	<3.0	35(22.6)	
	3.0~(3.5)	50(32.3)	
	3.5~(4.0)	47(30.3)	
	≥4.0	23(14.8)	

3.2 대상자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소진 정도

대상자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06 ± 0.42 점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9 ± 0.49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64 ± 0.55 점, 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2.72 ± 0.59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Grit,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Burnout (N=155)

Variables	M±SD	Mini	Max	Range
Grit	3.06±0.42 (36.71±5.03)	2 (19)	4 (51)	1-5 (12-60)
Resilience	3.49±0.49 (83.69±11.79)	2 (53)	5 (116)	1-5 (24-120)
Academic self-efficacy	3.64±0.55 (102±15.32)	2 (53)	5 (153)	1-6 (28-168)
Burnout	2.72±0.59 (40.75±8.78)	1 (15)	4 (66)	1-5 (15-7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소진은 성격($F=6.16, p<.003$), 대인관계($F=10.94, p<.001$), 취업희망 분야($\chi^2=8.52, p=.014$), 대학생활만족도($F=21.31, p<.001$), 전공만족도($\chi^2=31.10, p<.001$), 임상실습만족도($\chi^2=31.10, p<.001$), 학업성적($F=6.8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 소진 정도는 성격에서 내향적이 외향적인 경우보다 높았고, 대인관계는 보통이 좋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취업희망 분야에서 보건소가 대학병원급보다 높았다. 또한 대학생 생활만족도에서 보통과 불만족이 만족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이 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에서 3.0미만인 경우가 3.5이상 4.0미만과 4.0이상인 경우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Burnou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Burnout	
			M±SD	t/F/ χ^2 (p) post hoc
Gender	Male	13(8.4)	2.69±0.61	-0.15 (.882)
	Female	142(91.6)	2.72±0.59	
Personality †	Introverted ^a	91(58.7)	2.84±0.60	6.16 (.003) a>b
	Extroverted ^b	55(35.5)	2.50±0.53	
	Others	9(5.8)	2.79±0.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	Good ^a	80(51.6)	2.52±0.55	10.94 (.001) b>a
	Moderate ^b	72(46.5)	2.91±0.54	
	Bad	3(1.9)	3.27±0.72	
Hopeful Employment †	University hospital ^a	97(62.6)	2.62±0.61	8.52 (.014) a>b
	small and medium hospital	34(21.9)	2.81±0.48	
	Public Health ^b	16(10.3)	3.10±0.60	
	Others	8(5.2)	2.69±0.24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	Satisfaction ^a	84(54.2)	2.47±0.56	21.31 (.001) b,c>a
	Usually ^b	68(43.9)	3.00±0.47	
	Dissatisfaction ^c	3(1.9)	3.33±0.37	

Satisfaction of major †	Satisfaction ^a	88(56.8)	2.44±0.54	31.10 (.001) c>b>a
	Usually ^b	62(40.0)	3.03±0.40	
	Dissatisfaction ^c	5(3.2)	3.64±0.28	
Satisfaction of clinic practice †	Satisfaction ^a	88(56.8)	2.51±0.55	31.10 (.001) c>b>a
	Usually ^b	58(37.4)	2.91±0.50	
	Dissatisfaction ^c	9(5.8)	3.44±0.50	
Grades †	<3.0 ^a	35(22.6)	2.98±0.53	6.82 (.001) a>c,d
	3.0~<3.5 ^b	50(32.3)	2.82±0.51	
	3.5~<4.0 ^c	47(30.3)	2.54±0.56	
	≥4.0 ^d	23(14.8)	2.44±0.67	

† Scheffe test.
‡ Kruskal-Wallis test

3.4 대상자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소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소진은 그릿($r=-.42, p<.001$), 회복탄력성($r=-.63,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52, p<.001$)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릿($r=.53, p<.001$), 회복탄력성($r=.62, p<.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회복탄력성도 그릿($r=.49, p<.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Grit,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Burnout (N=155)

Variables	Grit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Burnout
	r(p)	r(p)	r(p)	r(p)
Grit	1			
Resilience	.49 (.001)	1		
Academic self-efficacy	.53 (.001)	.62 (.001)	1	
Burnout	-.42 (.001)	-.63 (.001)	-.52 (.001)	1

3.5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격, 대인관계, 취업희망 분야,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학업성적을 가변수 처리 후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17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41~0.82,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3~2.39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및 상호독립성이 만족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3.18, p<.001$) 수정된 결정계수는 .60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beta =-.30, p<.001$), 전공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beta=.21, p=.006$), 전공 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beta=.17, p=.009$), 임상실습 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beta=.18, p=.009$),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19, p=.017$), 임상실습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beta=.15, p=.032$)로 총 변화량의 60%를 설명하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Burnout (N=15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78	.35		13.81	<.001
Resilience	-.35	.09	-.30	-3.85	<.001
Satisfaction of major(Usually) *	.26	.09	.21	2.78	.006
Satisfaction of major(Dissatisfaction) *	.57	.22	.17	2.64	.009
Satisfaction of clinic practice(Dissatisfaction) *	.45	.17	.18	2.64	.009
Academic self-efficacy	-.20	.08	-.19	-2.42	.017
Satisfaction of major(Usually) *	.17	.08	.15	2.17	.032

$R^2=.65, \text{Adj. } R^2=.60, F=13.18 (p<.001)$

Reference group : *Satisfaction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0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3.01점[30]으로 비슷한 수준이

거나 3.31점[31]으로 높았으며,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3.89점[32]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를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3학년 학생으로 국한하였으나 선행연구[31,32]에서는 임상실습을 최소 1학기를 이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결과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그릿의 중요한 특성[26]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 결과 그릿은 상황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OVID-19 상황에서 그릿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31]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간호학생의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3.54점[32]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COVID-19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 대상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7점[33], 예비유아교사 대상에서 평균 3.54점[34], 비서학 전공 대학생 대상에서는 평균 3.57점[35]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OVID-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전공에서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며, 학년별 차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복탄력성은 변화와 도전적인 환경에 적응하려는 역동성을 가진 긍정적 능력[36]으로 각 학년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기에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OVID-19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며[14] 차츰 변화된 캠퍼스 생활과 언택트 수업방식, 온라인 임상실습, 감염병과 방역지침 등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된 사회적 현상에 유연하게 적응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COVID-19 상황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3.65점[37]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고, 5점 만점으로 측정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평균 2.98점[38]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

이거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평균 3.49점 [19]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ark과 Ahn[19]의 연구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신입생에 비해 임상실습과 전공 교과목 수업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책임감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연구를 통해 학년별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COVID-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쌍방향 온라인 수업 등 다각적인 수업방식과 상황에 적응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학습환경과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으로 워드 코로나 시대와 향후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여 미래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축시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학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2.72점, 75점 만점에 40.7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41.4점 [23]으로 비슷하거나 평균 45.18점 [22], 평균 3.41점 [11]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선행연구는 COVID-19 발생 이전에 시행된 연구로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하거나 [22] 특수부서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11] 연구결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 중에서도 3학년의 소진 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소진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23] 토대로 COVID-19 상황 이전에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때 가장 심한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학년별로 소진의 정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은 3학년이 되면서부터 100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COVID-19 상황에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환자와 접촉하며 임상실습을 해야 하며 이론 수업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적응하고 본인 스스로 학업을 관리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스트

레스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소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진은 성격, 대인관계, 취업희망분야,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학업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이 내향적일수록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39] 학교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멘토링 또는 상담 등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소진 예방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기적인 임상실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임상실습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은 회복탄력성이 높고 전공과 임상실습에 만족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Cho와 Kang [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학업소진은 전공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낮다는 Lee [3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는 Park과 Yeom [4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과나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소진은 성격이 내향적일수록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았다. 연구대상자들의 그릿,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소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진은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소진에 대한 영향요인은 회복탄력성, 전공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로 설명력은 60%이었다. 본 연구결과 COVID-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대면 및 비대면 이론 수업을 병행하며 학업의 강도가 높아지는 3학년 1학기에 자기 스스로 학업에 대한 관리와 직면한 역경에 적응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흥미를 갖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학습에 몰입하기 위한 단계별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간호대학 3학년으로 대상자가 국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 대학생과 학년별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추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소진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추후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측변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21).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response to COVID-19 in the education sector*. Ministry of education(Onlin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7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2] Korean Nursing Education Evaluation Institute. (2021).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Korean Nursing Education Evaluation Institute(Online). <http://www.kabone.or.kr/reference/refRoom.do>
- [3] Daily medi. (2021). *College of practical nursing in Covid-19*. Daily medi(Online).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966>
- [4] S. O. Shin. (2020). Nursing students' feelings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2), 75-81. DOI : 10.22156/CS45MB.2020.10.12.075
- [5] H. Aslan & H. Pekince. (2020).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 19 pandemic and their percei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7(2), 695-701. DOI : 10.1111/ppc.12597
- [6] Korea University news. (2021). College students thinking about taking a leave of absence. 1 out of 4 students plan to take a leave of absence, Korea University news(Online).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4023>
- [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8] A. Salles, G. L. Cohen & C. M. Mueller.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7(2), 251-254. DOI : 10.1016/j.amjsurg.2013.09.006
- [9] S. N. Slick & C. S. Lee. (2014).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61-66. DOI: 10.14400/jdc.2014.12.8.61
- [10] Z. F. Daniel, G. Shah & Z. Sidney. (2012). Burnout in premedical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Psychiatry*, 36(1), 11-16. DOI : 10.1176/appi.ap.10080125
- [11] J. G. Kim, J. H. Yoo & E. Y. Cheon. (2017).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16-324. DOI : 10.5762/KAIS.2017.18.1.316
- [12] C. Gibbons. (2010). Stress, coping and burn-out

- i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10), 1299-1309.
DOI : 10.1016/j.ijnurstu.2010.02.015
- [13] A. Rudman & J. P. Gustavsson. (2012).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8), 988-1001.
DOI : 10.1016/j.ijnurstu.2012.03.010
- [14] K. M. Connor & J. R. T. Davidson.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DOI : 10.1002/da.10113
- [15] H. H. Cho & J. M. Kang. (2018). Effect of resilience, coping, and mental health on burnout of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2), 199-207.
DOI : 10.4094/chnr2018.24.2.199.
- [16] K. K. Ja & S. K. Lee. (2019). Influence of resilience and job embeddedness on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5(4), 362-372.
DOI : 10.11111/jkana.2019.25.4.362.
- [17] L. J. Thomas & S. H. Revell. (2016).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36, 457-462.
DOI : 10.1016/j.nedt.2015.10.016.
- [18] I. H. Yun. (2021).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COVID-19: Focusing on Multi-parallel Mediation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5), 130-137.
DOI : 10.22156/CS4SMB.2021.11.05.130
- [19] I. S. Park & S. S. Ahn.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grit of new students of nursing colleg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3(4), 1-12.
- [20] S. H. Lee & W. T. Jeon.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in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7(1), 27-35.
DOI : 10.3946/kjme.2015.27.1.27
- [21] E. I. Kim. (2020).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s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 665-674.
DOI : 10.5762/KAIS.2020.21.1.665
- [22] Y. K. Hong. (2016).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3] C. M. Hong.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using MBI-SS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4), 353-362.
DOI : 10.35873/ajmahs.2015.5.4.037
- [24] M. J. Moon & S. H. Le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burnout and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1-11.
DOI: 10.35873/ajmahs.2016.6.10.001
- [25]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26] S. R. Lee. (2014). *Effect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7]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 H. Y. Lee. (2014).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3), 337-346.
DOI : 10.7475/kjan.2015.27.3.337.
- [28] A. Y. Kim & I. Y. Park.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29]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30] J. Y. Park, C. H. Woo & J. E. Kim. (2018).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65-175.
DOI : 10.14400/JDC.2018.16.1.165
- [31] S. J. Lee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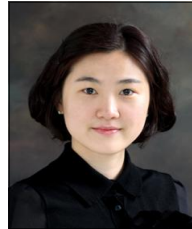
16(2), 269-276.

DOI : 10.14400/JDC.2018.16.2.269

- [32] K. H. Baek & M. O. Cho. (2020).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63-371.
DOI : 10.14400/JDC.2020.18.6.363
- [33] K. Park, M. Jung & S. H. Kim. (2021). Effects of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4), 1361-1374.
DOI : 10.22143/HSS21.12.4.97
- [34] M. R. Lee, H. W. Lee & J. H. Tak.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491-512.
DOI : 10.22251/jlcci.2017.17.2.491
- [35] J. W. Han. (2018). The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the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7(4), 5-27.
DOI : 10.35605/jss.2018.12.27.4.5
- [36] Q. Gu & C. Day. (2007).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1), 1302-1316.
- [37] E. Lee. (2021). Affecting factors the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of non-face-to-face class in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011-1030.
DOI : 10.22251/jlcci.2021.21.4.1011
- [38] S. J. Lee & T. S. Shin. (2018). The effects of mindsets on academic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ed by grit -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whether the students gave up on mathematics or no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1), 59-87.
DOI : 10.15753/aje.2018.03.19.1.59
- [39] H. R. An, J. Y. Lee. (2021).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3), 34-45.
DOI : 10.22156/CS4SMB.2021.11.03.034
- [40] H. J. Park & Y. R. Yeom. (2021).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5), 66-73.
DOI : 10.22156/CS4SMB.2021.11.05.066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nccsemi@gmail.com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pseudoan@naver.com